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날 무심히 올려다 본 하늘, 가늠할 수 없이 높아진
맑고 푸른 하늘에 깜짝 놀랍니다. 감성 충만한 가을이 어느덧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선선한 가을 바람, 눈부신 황금 햇살,
시원한 공기가 있는 이 가을을 행복하게 느끼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감사합니다.

Metocene MF650Y, MF650Z

프리미엄 전기차량을 위한 폴리미래의 친환경 솔루션!



<<< Metocene MF650Y, MF650Z

메탈로센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Metocene MF650W, MF650X, MF650Y, MF650Z는 기존 PP보다 매우 적은 저 분자량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매우 좁은 분자량 분포도를 가진 제품으로 친환경적이며 특히 MF650Y, MF650Z는 전기차에 적용되는 흡음재, 단열재로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oly Village 2021 Autumn Vol.47

Poly & Business

- 04 CEO 메시지
친애하는 폴리미래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직원 여러분
김방현 대표이사/사장
- 06 오늘 폴리미래
폴리프로필렌의 지속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의 구축
지속성장팀 하구열 상무
- 10 폴리 핫이슈
글로벌 해상 물류 대란에 따른 폴리미래의 전략적 대응 방안
사업자산관리팀 이길중 상무
- 14 뉴스 브리핑
- 19 인사동정
- 20 특집
미래의 삶을 바꾸는 전기차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김필수 교수

Poly & People

- 24 폴리 인터뷰
신입사원 6인의 첫인사,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 30 증인피플
생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목마름으로 떠난
여수공장 파견기
공정팀 박홍준 과장
- 32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모든 해답은 고객으로부터,
고객 만족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내수영업팀
- 36 우리들의 뜨거웠던 여름이야기
집강스, 휴강스, 바강스 모두 모여라~

Poly & Relax

- 40 힐링 메시지
- 42 라이프 트렌드
와인, 라벨 디자인이 품고 있는 스토리!
소믈리에타임즈 도윤 기자
- 44 컬처&컬처
느끼기 좋은 계절, 문화路 가을 산책
문화칼럼니스트 유진
- 48 퀴즈세상

PolyMirae Magazine

폴리마을 통권 제47호 | 발행인 김방현 | 발행처 폴리미래주식회사 Poly Village Vol.47 | 2021 Autumn | 발행일 2021년 10월 1일 | 기획 사보기획팀 | 디자인·제작 에브리빙디자인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7층 | TEL (02)2167-8914

이 책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친애하는 폴리미래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저는 2021년 폴리마을 가을호를 통해 그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동안 함께 성취해 온 것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나눔과 동시에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폴리미래는 지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하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폴리미래는 주주, 관계사, 고객 및 지역사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 하에 지난 20년간 꾸준히 다져온 지속성장을 위한 기틀과 역량을 기반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각자 업무에 혁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안전/환경/보건 분야는 물론이고 영업측면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1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지난 4월 17일 24:00부로 우리는 무재해 3,300일(11배수)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였으며, 동시에 재무적인 성과 역시 계획대비 높은 실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매우 불확실한 시장 환경으로 인하여 상당히 도전적인 시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유행 이후 세계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글로벌 해상 물동량 역시 급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컨테이너 및 선박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상 운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초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우리 폴리미래와 같이 수출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기업에게는 더욱 큰 비용부담 및 영업활동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사보다 앞서고 많은 도전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었습니다. 폴리미래의 모든 임직원이 One Winning Team 정신으로 함께 최선을 다한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 역시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 그 동안 폴리미래와 폴리프로필렌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김방현
대표이사/사장

폴리프로필렌의 지속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의 구축

폴리프로필렌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화학구조로 환경 친화적인 특성과 가볍고 높은 내열성 등의 장점으로 자동차, 각종 포장재, 섬유, 산업용 내구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류의 편리함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현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9100만 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속성장팀 _ 하구열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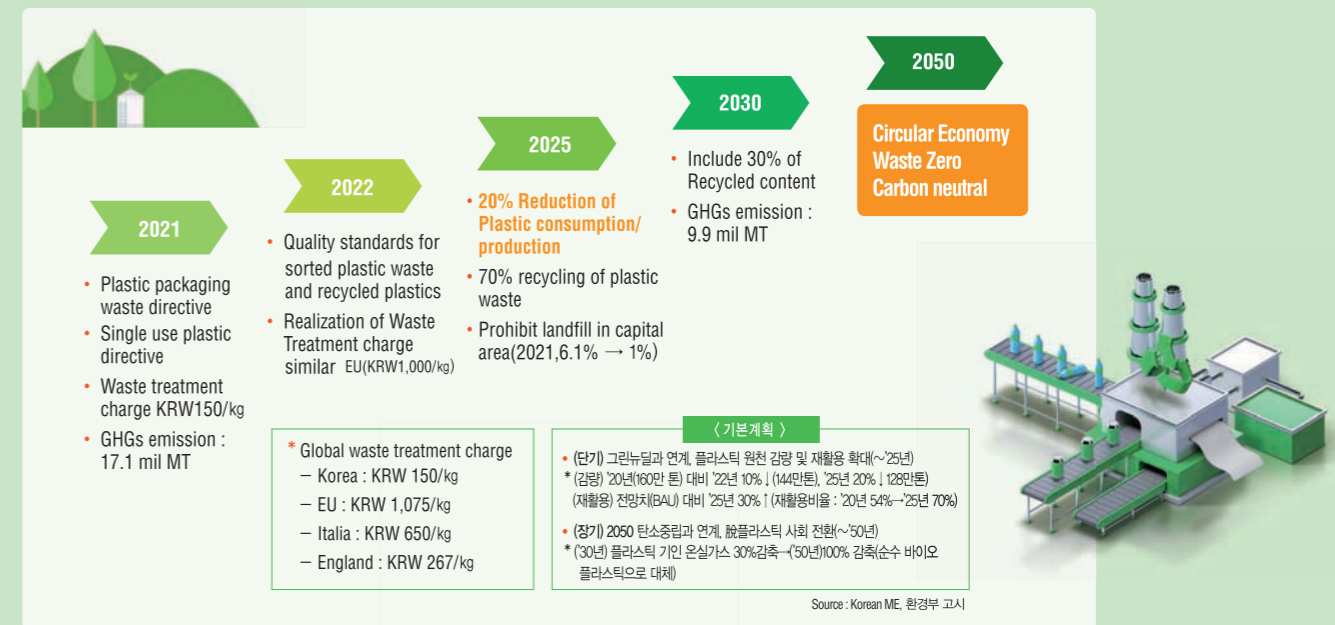


폴리프로필렌은 특히 환경 친화적, 내열성 등의 장점으로 식품포장 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배달 수요 증가, 신선 식품 선호, 1인/2인 가구 증가, 고령화, 간편 조리 수요 증가, 일하는 여성의 증가, 반려동물 문화 등에 힘입어 식품 포장 재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섬유분야에서도 미세한 섬유 가공의 장점이 있어 기저귀, 생리대, 물티슈, 세면포 등의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필터 흡음재, 마스크, 오일 흡착포, 단열재 등의 산업용 부직포 등으로 폭넓은 수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개인 위생 및 방역이 중요해진 지금 마스크, 방호복, 물티슈 등 방역 물품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등 점점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온 플라스틱은 대량 생산되어, 총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200만 톤에서 2020년에는 231배 증가하여 4.6억 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뛰어난 내구성을 장점으로 일상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으며 인류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지금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또한 급증하게 되었으며, 일부에서는 플라스틱 소비 이후 처리 흐름의 관리 부재로 인한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 변화에 기인한 탄소중립에 관한 시대적 요구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및 미국에서도 폐플라스틱의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관리를 위한 탄소중립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감량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입안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래 [그림 1]과 같이 '생활폐기물에서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감축하고 2030년에는 재생 원료 사용 의무적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플라스틱의 순환을 위한 폐기물 분담금을 유럽과 같이 현실화 하고, 이 자금은 소비되고 난 플라스틱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림 1] 국내의 연도별 플라스틱 규제 현황

플라스틱이 소비 후 회수되지 못하고 자연에 버려지거나 소각 및 매립 등의 흐름인 선형 경제에서는 회수 체계의 부재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후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을 회수하여 다시 자원으로 재순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순환 구조로 패러다임이 변화된다면 폐플라스틱은 훌륭한 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현재는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 판매, 소비, 폐기 등 경제의 전 과정으로부터 순환성을 높여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폐기물은 원료로 다시 순환하여 재생산에 투입하면,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들은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재활용 및 자원 순환에 관한 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폴리미래에서도 2000년 초기부터 이러한 산업의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응하고자 플라스틱의 감량(Reduction), 적합한 용도로 재설계(Re-Design), 플라스틱 폐기물을 주요한 자원으로 재순환(Recycle)하는 3가지 전략 하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좋은 성과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플라스틱 감량(Reduction)

폴리미래의 차별화된 고품질 PP는 높은 강성과 충격 특성의 밸런스로 자동차, 식품 용기, 섬유 산업 등에서의 박막화, 경량화, 세척화를 진행하였으며, 고객이 PP사용량을 감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흐름성은 사출압과 형체력을 줄일 수 있어 가공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였으며 차세대 촉매를 적용하여 물성 강화를 통한 지속적 박막화, 경량화, 세척화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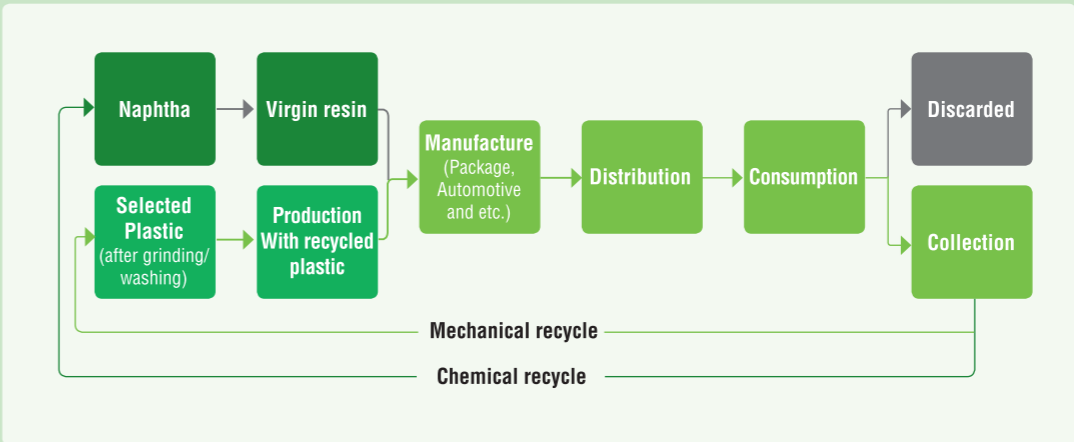
2. 적합한 용도로 재설계(Re-Design)

제품이 선순환 과정에서 물성 저하, 착색 발현 등의 문제점 없이 각 용도에 적합하도록 수지의 구조, 첨가제 등을 재설계함으로써 기계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활동이 장기적 순환 사이클에 적합하도록 지속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재활용(Mechanical Recycling & Chemical Recycling)

순환 경제로 유입을 위해서는 기계적 재활용(Mechanical Recycle)과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에 대한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세척, 분쇄, 건조 과정을 거쳐 재생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계적 재활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염된 폐플라스틱과 재활용 횟수를 거듭할수록 품질이 낮아진다는 한계로 재활용 비율의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학적 재활용의 병용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화학적 재활용은 고분자 물질로 구성된 플라스틱을 열분해와 같은 화학적 반응을 통해 기존 원료인 모노머로 전환하는 것으로, 폐플라스틱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새롭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폴리미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Circularity) 구축을 위하여 기계적 재활용 사업과 장기적으로는 그린 모노머 사용을 통한 화학적 재활용 PP생산을 병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 수집, 분류, 분쇄 및 세척, 건조 및 분류, 압출 및 전환과 같은 물리적 재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일하고 깨끗한 폐플라스틱을 얻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소비자, 가공업자, 그리고 폐플라스틱 수집을 위한 자원순환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공급받은 PCR-PP의 용도 개발 및 시장에 공급을 하며 이를 통해 플라스틱 선순환 구조(Circularity)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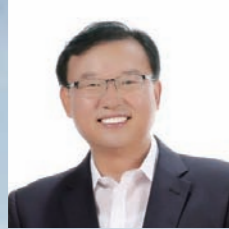


장기적으로는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열분해로 얻어진 그린 프로필렌과 에틸렌을 사용, 화학적 재활용 PP를 생산하여 2030년 의무적 리사이클 30% 사용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기계적 재활용과 병행하여 모색하고자 합니다.

폴리미래는 폴리프로필렌 전문 기업으로서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LyondellBasell 및 DL Chemical 등 주주사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성장 전략을 충족하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적기에 유도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을 강화하려 합니다. 따라서 기계적 재활용 및 그린 모노머 수급을 통한 화학적 재활용 폴리프로필렌의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탄소배출량 증가 없는 '탄소 중립 성장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 선순환 구조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해상 물류 대란에 따른 폴리미래의 전략적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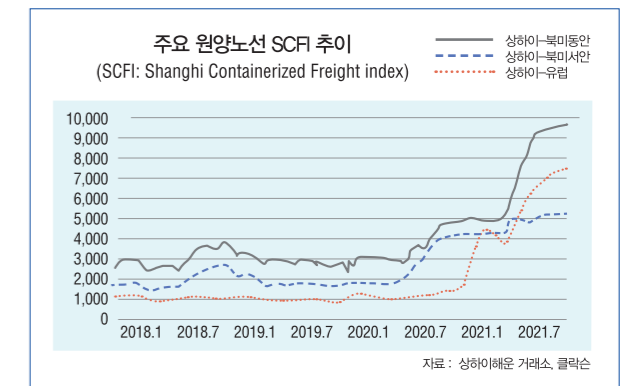
사업자산관리팀 _ 이길중 상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위로 북한이 가로막고 있어 섬과 마찬가지로, 부존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 주요인은 수출에 의한 산업 발전인데, 이러한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가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새 컨테이너 운임비가 다섯 배 가까이 폭등하였습니다. 이런 여파가 폴리미래에도 가감 없이 적용되어 인상되는 해상운송 비용이 영업이익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선적 공간이 부족하여 다음달로 이월되거나 운송비용 증가로 거래를 취소하는 수출 물량이 과거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해운시장은 2021년 상반기 주요 국가의 빠른 경기 회복으로 해운 물류 수요가 급증했으며, 여기에 수에즈운하 사고 및 항만 체선 등으로 물류 지연과 공급부족 효과까지 더해지며 급격한 운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하반기에도 운임 상승은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 이후 해소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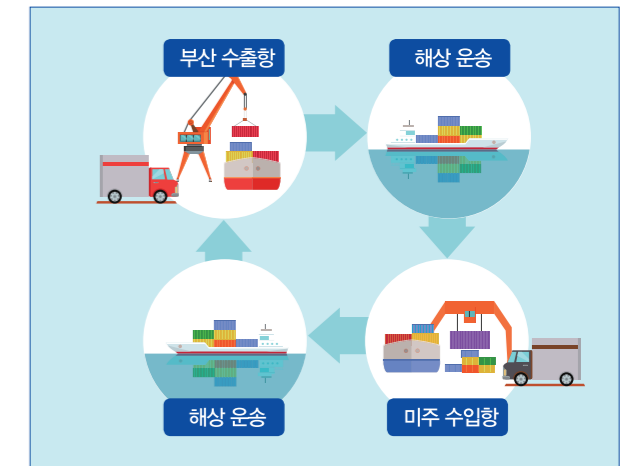
2020년 초기, 코로나 이후 잠시 멈추었던 세계 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펴며, 정상화를 위한 진행 과정에서 해상운송은 단기간에 막혔던 해상 물류흐름을 복원하기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 경기가 회복되며, 원·부재료의 부족에 대한 가수요와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비대면 쇼핑에 의한 소비재 수요의 증가는 해상운송의 물동량을 증가시켰으며,
- 더욱이 2021년 2월 중순에 발생한 미국의 원터스트와 정전 사태는 폭발적인 해운 물량의 증가로 이어지며 미국의 항만 적체와 컨테이너 밀집을 야기시켰고,
- 2021년 3월 23일부터 3월 29일 수에즈운하를 가로막았던 에버 기븐(Ever Given)호 좌초 사건으로 해운물류 흐름의 한계를 더욱 심화시켜 이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덴마크 해운조사기관인 시인텔리전스에 따르면 6월 컨테이너선 정시 도착률은 39.5%로 여전히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77.7%와 비교하면 38.2%포인트(p)나 낮은 수치입니다.

수출입 시장의 해운물류는 컨테이너에 의한 물동량 처리방식이기에 연속적인 컨테이너의 흐름이 유지되어야 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로가 막히면 운송이 지연되며 돌아오는 선박 일정도 지연되어 컨테이너 하역과 선적이 연기됩니다. 이로 인한 수출항의 수출용컨테이너 수가 많아 적체되면 선적할 수 있는 선박 공간이 부족하여 순위가 다음으로 연기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더욱이, 팬데믹 현상의 지속과 함께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의 영향으로 수출입 항구의 코로나 환자 발생과 항구 봉쇄조치, 코로나 검사로 선적/하역 능력의 감소 등은 컨테이너 순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여 해운물류 적체 및 혼잡(CONGESTION)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발생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의 순환 지연은 대륙 간 수출입 불균형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아시아 수입 규모보다 북미 수입 규모가 훨씬 커서 북미 대륙에 컨테이너가 다량 적체되어 있습니다. 2020년 생산된 컨테이너 박스 개수는 약 280만 TEU**로 이는 평균 대비 적은 규모가 아니며, 2021년 1월에만 약 30만 TEU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운송 지연의 원인이 컨테이너 박스 수량의 부족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을 보여줍니다. 컨테이너 박스의 동서항로 1회 왕복 주기는 평균 65일 정도인데, 일부 컨테이너의 경우 100일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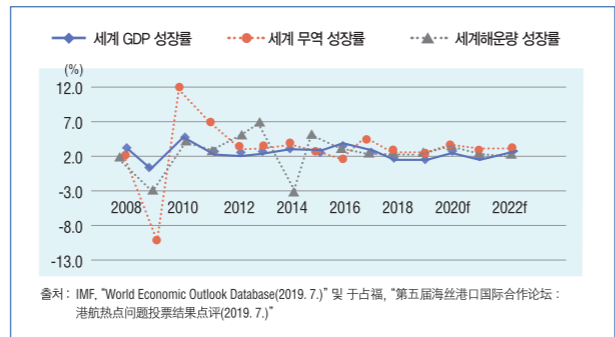
1980년~2010년 기간 세계 해운 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9% 정도로 해운선사들은 높은 성장률과 해운물류의 컨테이너화(벌크선으로 옮기던 것들이 컨테이너 선으로 옮겨짐), 각 국가별 원부재료 조달의 글로벌 아웃소싱 정책 등에 의한 해운시장확대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 성장률이 3%로 낮아짐에 따른 해상 운임비 인하의 과열경쟁에 대한 수익성 리스크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조치 합의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감소, 2050년부터 탄소 중립 선박을 운용해야 하는 기술적인 리스크 때문에 선박 발주로부터 사용까지 2~3년 소요되는 추가적인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16,000TEU~24,000TEU) 투자에 인색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환경 규제 효과에 의한 본격적인 컨테이너 선박의 폐선 증가가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재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운임의 고공행진은 우리가 도전해야 할, 아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당면해 있습니다. 비단 폴리미래만의 문제가 아니며, 같은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인상되는 해상 운임을 우리 스스로 흡수하고 극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과거보다 한발 더 앞서는 노력으로, 폴리미래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운영을 통해 해운물류 이슈에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순위 | 사명 | 국적 | 선복량 |
|-----|------------|------|-------|
| 1위 | 머스크 | 덴마크 | 4,073 |
| 2위 | MSC | 스위스 | 3,854 |
| 3위 | 코스코 그룹 | 스위스 | 3,032 |
| 4위 | CMA CGM 그룹 | 프랑스 | 2,917 |
| 5위 | 하파크로이트 | 독일 | 1,723 |
| 6위 | ONE | 일본 | 1,563 |
| 7위 | 에버그린 | 대만 | 1,261 |
| 8위 | HMM | 한국 | 708 |
| 9위 | 양명해운 | 대만 | 337 |
| 10위 | 짐 | 이스라엘 | 337 |

세계 컨테이너 해운사 순위(자료=알파리너 등)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9. 7.)" 및 于占福, "第五届海丝路国际合作伙伴论坛: 港航热点问题投票结果点评(2019. 7.)"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 20피트(6.096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

01 프리미엄이 확보되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폴리미래의 제품 경쟁력 확보

2020년 4Q에는 유럽으로 가는 운송비가 톤당 100불 이하였으나, 현재의 운송비는 톤당 600~700불 이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당장은 인상된 운송비로 인해 높은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프리미엄이 확보되는 차별화된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판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폴리미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가된 해상운임을 극복하지 못하는 기업은 1~2년 후에 아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에는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확보되는 차별화된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과 생산으로 변동하는 해상운임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 폴리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02 안정적인 내수 확보와 전 세계 판매지역 확대

해상운임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내수고객 물량 확보가 과거보다 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로의 판매지역 확대 및 다양한 고객 확보가 수출 판매(Export Sales)의 유연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물류 이슈와 같이 해상운임 증가 시 미주/유럽/중동 등의 비용 증가 폭이 아시아 등의 근거리 해상운임 증가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해상운임 상승의 영향이 적은 지역으로 단기간 판매지역을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 세계 고객 풀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내수고객 물량을 유지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해상운송비용 인상 리스크를 감소시켜 안정적인 운영과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03 제품가격에 해상운송비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격 구조 확립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는 해외고객과의 신뢰구축과 함께, 해상운송 물류비용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이익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여 포뮬러(Formula) 거래뿐만 아니라 스팟(Spot) 거래에서도 가격 책정 시 해상운임을 적용한 가격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상호간의 부담과 리스크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04 수출 제품의 이월되는 거래 최소화

현재와 같은 해상운임의 연속적인 상승과 그 인상 폭의 불확실성 속에는 선적지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송비 및 항만 사용료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전 컨테이너/선복확보, 페이먼트(Payment)확보, 가용성확보 등을 통해 수출 제품 이월 거래를 최소화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05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바탕으로 포워드와 같이 선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유도

해외 고객과 논의된 수출 물량의 안정적인 장기 계약과 더불어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바탕으로 제품 공급의 정시 도착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적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포워드를 통한 선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룸으로써 하주/포워드/선사 3자간의 안정적인 수출 물량, 안정적인 선적 공간 확보, 지속적인 해상운송 화물량 확보를 통해 상호간의 효율성과 수익성의 최적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은 절대 오래가지 않지만 강한 사람들은 오래간다고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폴리미래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극복하여 경쟁력 있는 강한 기업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News briefing

2021 Autumn Vol.47



2021년 임금교섭 회사 위임식

2021년 임금교섭 회사 위임을 기념하기 위한 위임식이 김방현 대표이사와 정원희 노조위원장 및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0일 여수공장에서 진행되었다.

정원희 노조위원장은 폴리미래 출범 이래 수많은 역경을 직원과 회사가 함께 극복해 오면서, 직원과 회사간의 견고한 신뢰가 구축되었고, 이번 코로나19 역시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의지를 표명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임금위임을 결정하였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에 김방현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이 이번 임금위임을 통해 회사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신뢰와 직원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폴리미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노사협력팀 황상호 과장



울산피피 준공식 참석

폴리미래와 SK어드밴스드가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폴리프로필렌 전문 제조기업인 울산피피의 준공식이 2021년 6월 30일에 진행되었다.

울산피피는 2019년 3월 착공하여, 약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4월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울산피피의 준공으로 인해 폴리미래는 연간 약 110만 톤의 국내 최대 규모의 판매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울산시 관계자 및 폴리미래를 포함한 주주사 대표,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울산피피의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하였다.

인사노사협력팀 유지연 사원



2021 ANEX Technical webin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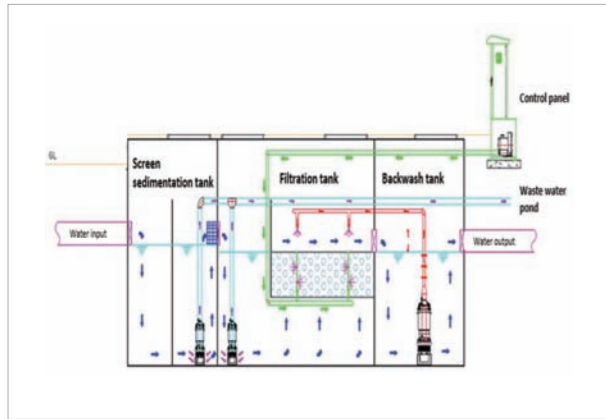
폴리미래는 2021 ANEX에서 개최하는 Technical webinar에 참석하여 지난 7월 6일과 8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PolyMirae’s advanced Polypropylene for Fiber application”을 주제로 기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ANEX(Asia Nonwovens Exhibition and Conference)는 북미의 INDA, 유럽의 INDEX와 함께 세계 3대 부직포 전시회로서 아시아에서 3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폴리미래 기술팀 박세영 대리와 시장개발팀 심수연 주임이 참석하였다. 이번 Technical webinar에는 여러 파이버 제조 업체들과 관련 직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PMC 파이버용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기술 발표 후 Q&A를 통해 다양한 기술적인 교류와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우리의 기술력, 생산력은 물론 제품 및 브랜드의 명성을 올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기술팀 김학상 팀장

News briefing

2021 Autumn Vol.47



비점오염원 방지설비 설치

폴리미래는 2021년 상반기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였다. 비점오염원이란 불특정한 장소인 도시, 도로, 농촌, 산 등의 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인데, 이 오염물질이 수계로 흘러 하천 등에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이러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0,000㎡ 이상인 14개 업종의 경우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폴리미래도 이에 해당되어 이번 여천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수계로 직접 방류하지 않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저감된 오염원을 내보냈다. 이는 폴리미래가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폴리미래는 지속적으로 공정관리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폐수 배출허가량의 약 21% 정도만 배출하고 있다.

안전환경팀 양정교 부장



예비 폴리미래人を 위한 Company Introduction



KOTRA가 주관하는 대학순회 채용설명회 참가(고려대학교/세종대학교/한양대학교)

폴리미래는 2021년 4월~6월의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KOTRA가 주관하는 대학순회 채용설명회에 참가하여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폴리미래 채용에 관심이 있는 고려대, 세종대, 한양대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회사소개와 함께 채용 절차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Q&A 세션을 통해 예비 입사지원자들과 소통하면서 폴리미래를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인사노사협력팀 유지연 사원



2021 행복나눔 영등포구청 감사패 수여

폴리미래는 영등포구청이 선정한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우수기부자로 선정되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폴리미래는 주주와 고객, 직원, 지역사회에 특별한 가치를 전달 한다는 비전 아래 지속적으로 본사 소재지인 영등포구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마스크 기부, 쪽방촌 도배봉사, 김장김치 전달,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지난 한해 영등포구 지역에 도움을 준 다양한 기부자들이 초청되었고, 폴리미래에서는 인사노사협력팀의 이정균 과장이 참석하였다. 폴리미래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인사노사협력팀 유지연 사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웹 세미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법규현황을 파악하고자 법무법인(유) 화우에 의해 개최된 웹 세미나에 관련자들이 참석하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률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의 의무에 방점을 두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더 나아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보호대상도 산업안전 보건법에 비해 확대되었고, 처벌도 상대적으로 강화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폴리미래는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 안전환경측면의 위기관리에 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전환경팀 김태수 부장

News briefing

2021 Autumn Vol.47



21년 상반기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완료

최근 각 산업 분야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소방시설은 화재 상황에 항상 정상 작동되도록 그 기능을 유지 관리해야 하며, 소방관련 법규에서는 대상물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폴리미래는 법적 요구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반기 1회의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은 4월 상반기 소방시설 자체 점검 및 그 후속 조치를 완료하였다.

폴리미래는 지속적 선제적으로 소방시설 정상 작동을 위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안전환경팀 박철 과장

안전환경팀의 외부기관 점검 대응

4월 28일, 여수 산단 전체를 대상으로 시청 점검이 있었다. 잦은 사외배관 사고로 인하여 사외배관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고, 지적 사항 없이 마무리되었다.

5월 10~11일 이틀간 폴리미래 전 공장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있었다. 소방특별조사는 연 1회 실시되며, 소방시설, 위험물, 방화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안전관리자 법정 의무 이행 여부, 안전관리 체계 등을 주로 조사한다.

5월 21일, 평여공장의 고압가스 별도냉동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 있었다. 이는 한국가스안전공단에서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점검으로, 현장 관리가 잘 되어있어 문제없이 완료되었다.

5월 25일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원자력 사용자 정기검사를 시행하였다. 철저한 사전 서류 점검과 현장 점검으로 인하여 조치사항 없이 합격 통과하였다.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압력용기들에 대해 검사를 받았다. 산법 압력용기는 4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며, 이번에 검사한 용기 110개 모두 합격하였다.

6월 29일에는 여천공장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의 정기검사가 있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합격 통보를 받았다.

안전환경팀 장수빈 주임

인사동정

승진

2021. 4. 1부
2급 사원으로 승진 고종현
4급(을) 사원으로 승진 함선영

신설

2021. 6. 7부
지속성장팀
하구열, 명수은

입사

2021. 5. 20부
김대인, 김성현, 소병현,
이창규, 차승언

2021. 6. 1부
기술팀 정상호

2021. 6. 11부
사업자관리팀 안가나

부서/보직변경

2021. 4. 6부
생산2팀 이동준

2021. 4. 12부
사업자관리팀
이길중(팀장/상무)

공정팀 하대봉
(업무혁신팀장 겸임)

2021. 5. 10부
기술팀 정재근

2021. 5. 17부
사업자관리팀 김승현

2021. 6. 7부
인사·노사협력팀
이광섭(팀장/상무)
기술팀 김학상(팀장)
시장개발팀 강은혜(팀장)

2021. 6. 14부
생산3팀 박준상

2021. 8. 30부
공정팀 이홍석

복직(육아휴직)

2021. 5. 1부
재무팀 김가영

2021. 5. 12부
사업자관리팀 김희진

퇴사

2021. 6. 30부
기술팀 김철재

2021. 7. 5부
생산2팀 황정진

2021. 7. 16부
생산1팀 김병준

정년퇴직

2021. 6. 30부
재무팀 이주원



미래의 삶을 바꾸는 전기차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_ 김필수 교수



전기차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 지난 130여년의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등 무공해차의 주도권이 너무 빠르게 진전되다보니 자동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경각록 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기차 주도권은 지구 온난화, 즉 이산화탄소 문제 등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구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이상 현상으로 심한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곳곳이 신음하고 있으며, 더욱 이러한 현상은 심해지고 심각한 지구 황폐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요인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국제적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무공해차가 없으면 수출이나 정상적인 거래가 힘들 정도로 기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전기차 등의 기술개발이 촉진되면서 내연기관차 대비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도 더욱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다양한 모델이 중첩되는 기간이 약 40년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년 정도로 줄

었고 이제는 15년 정도로 급격히 줄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급격한 생태 변화는 능동적인 산업변화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성에서 경각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충격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미래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회도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움직임도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같은 무공해차에 자율주행차는 물론이고 이를 융합한 공유모델 등 다양한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이 큰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가 혼란스럽고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부분도 크지만 상대적으로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준비와 철저한 분석과 실행요건을 주도하는 기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미래 모빌리티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나온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더욱더 빠르게 변모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능동적이고 실시간적인 이행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미래의 자동차는 움직이는 가전제품이다

과거의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였다면 앞으로의 자동차는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 '바퀴달린 휴대폰'이라고 할 정도로 개념 자체가 변모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모빌리티'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의 범주에서 벗어나 확대된 개념의 모빌리티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자동차뿐만 아니라 초소형자동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도 탄생하고 있고 수년 이내에 하늘을 나는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도 등장하며, 특수한 지형을 움직이는 로봇 개념도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하나가 앞으로 산업군으로 성장할 만큼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약 3년 전 현대차 본사 타운홀 미팅에서 당시 정외선 수석부회장은 미래 현대차 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재탄생하면서 앞으로 자동차 50%,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30%, 나머지 20%는 로봇을 생산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 만큼 미래의 모빌리티 개념이 크게 뒤바뀐다는 뜻이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닌 모든 과학기술의 융합체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4차 산업혁명의 꼭지인 센서, 5G, 인공지능, 배터리 등 다양성과 융합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는 누가 몸을 많이 섞는 가가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다. 합종연횡과 적과의 동침은 기본이고 이종 간의 결합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글로벌 기업 모두가 나서고 있을 정도이다. 모든 것을 내가 다할 수 없는 만큼 장점을 가진 기업끼리 융합하면서 미래의 안개 속을 헤치면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들도 지난 세월의 '수퍼 갑'의 한계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수직·하청의 상하개념에서 수평·동등 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꼭지 중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개념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고 이를 응용한 공유모델이 미래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주도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후진국에서 자동차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의 선진 수준으로 올린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상당한 노하우를 집적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작년부터 출시되는 자동차는 더욱 품질과 가격 등 가성비 최고인 자동차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누가 미래 모빌리티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 기존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도 아직은 유효할 수 있을 것이고 라이다센서 등도 자율주행 기술의 한 축을 칠 수도 있을 것이며, 최근 부족현상이 과열화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도 한축은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각종 하드웨어로 무장한 융합형 모빌리티를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큰 주도권을 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포함한 회사는 더욱 큰 입김이 작용할 것이다. 그 만큼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5~10년 사이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왜 '전기차'가 있는가?

전기차의 역사는 사실 내연기관차보다 50년 이상이 길다. 1800년대 초반 전기차가 존재했지만, 효율이나 기능성 측면에서 기술적 한계가 컸다. 그러다 19세기 후반에 모습을 드러낸 내연기관의 발명과 경제성 높은 원유가 적극 활용되면서 내연기관차는 성장에 날개를 펴 현재까지 발전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무공해차의 필요성이 커졌고 특히 전기차의 기술적 진보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전기차는 보조금 없이 내연기관차와 싸울 수 있는 내공을 지니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전기차는 단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과 전기차의 가격이 낮고 일충전거리와 충전 시간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격도 아직은 보조금이 없이 내연기관차와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무공해차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고 일충전거리도 크게 늘고 있으며, 충전 인프라 등도 크게 진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술린 소모 대비 같은 주행거리 주행 시 약 20%의 낮은 비용이라는 실용성과 고장빈도 등도 낮아서 유지비도 낮은 장점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전기차는 단순한 미풍이 아닌 미래의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는 최근 급격한 전기차 전환과 미래차에 대한 각종 요소가 가미되는 급변혁기를 겪고 있다. 아직은 자동차 부품사의 업종 전환이나 관련 미래 모빌리티 전문 기술양성 등 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고민은 많고 할 일도 많다는 뜻이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아직 수소전기차는 수소의 발생, 이동 및 저장 등 여러 면에서 해결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고 기술적 한계 등으로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궁극의 미래차라고 할 수 있으나 전기차 그 다음 단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의 움직임도 전기차가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젤엔진의 개발은 멈추고 있고 가솔린 차량 등 내연기관차에 대한 한시적 생명을 크게 다루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북유럽을 시작으로 내연기관차 판매종식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 유럽으로 번졌고 최근 미국과 일본도 동참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35년 정도면 내연기관차 판매종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유럽연합에서 오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담시켜 지역 내에서의 탄소 문제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표명하였으며, 2035년에는 전체 내연기관차 판매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하여 많은 파장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럽 내에서 자동차의 수명을 약 15년 내외로 보면 오는 2050년 탄소제로 정책과 일치시키면서 2050년에는 아예 내연기관차가 길거리에서 사라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코로나 확산으로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여 글로벌 평균 9천만대 시장에서 약 7천만대 후반으로 떨어질 정도로 급감하였으나 전기차 판매는 326만대로 도리어 늘었다는 점이다.

올해는 400~450만대 정도 판매로 예상되었으나 500만대 달성도 어렵지 않다고 예측할 정도로 인기 중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하급수적 증가로 오는 2025년에는 연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 1,000만대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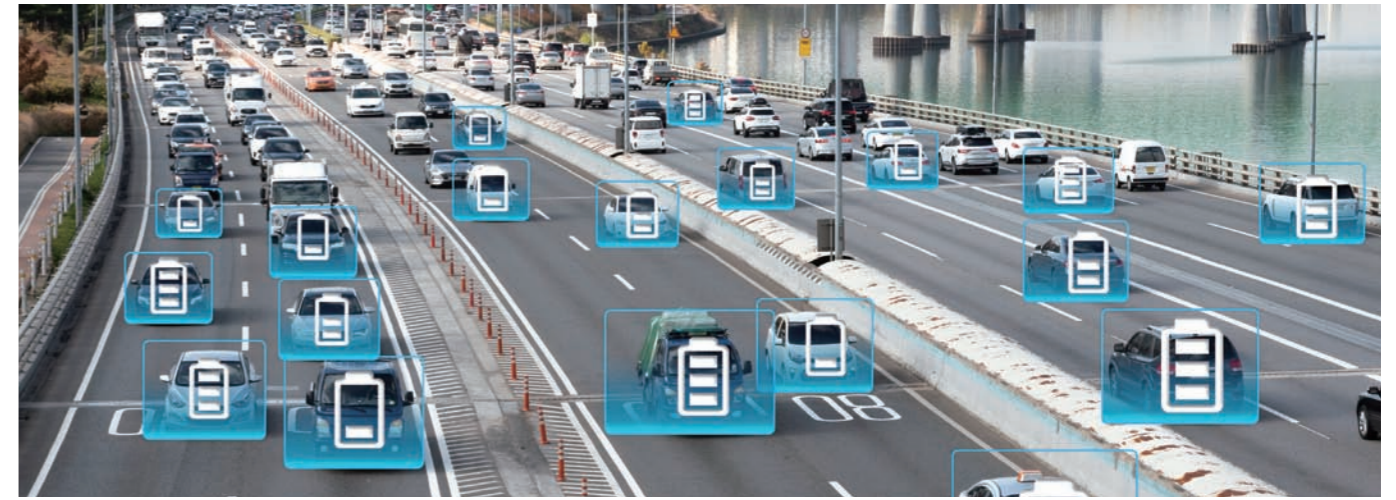
국내 전기차 판매도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대수 10만대를 넘겼고 올해 말에는 충분히 2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전 인프라도 6만기를 넘기면서 전기차 시대가 크게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기대가 되는

점은 올해가 전기차 중흥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차의 EV6 모델과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완성도 높은 전기차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그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이었던 테슬라 전기차를 견제하기 시작한 점이다. 앞으로 미국 GM, 유럽의 폭스바겐 등 완성도 높은 전기차가 더욱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관계

내연기관차의 부품수는 약 3만개이지만 전기차는 13,000~18,000개 정도라 할 수 있다.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변속기라는 핵심 부품이 빠지고 배터리와 모터가 차지하는 관계로 상당한 부품이 빠진다고 할 수 있다. 당장 해당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사는 앞으로 다른 친환경 부품으로 생산·전환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고 이에 따른 변신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약속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인력보다 약 30~40% 적게 투입되다보니 인력 재배치와 전환 교육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는 정비 분야도 비상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이미 고장도 나지 않는 자동차의 내구성으로 정비 분야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미 레드 오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전기차 등에 대한 정비교육은 전혀 되지 않아서 현재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등에 대한 정비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래가 안보인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각 분야에서 전기차 전환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능동적인 조치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모든 분야에서 경착륙이 우려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각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업종 전환과 전환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액션



플랜이 요구되는 시기가 할 수 있다.

한편,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수도 약 과반이고 전기에너지가 풍부하다보니 미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시키기 가장 좋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내연기관차를 보면 엔진룸에 손 하나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공간이 없어서 자율주행용 센서나 카메라 수십 개는 물론 각종 하드웨어가 들어가기 어렵고 이미 부족한 전기에너지도 공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차는 앞에는 별도의 '프런트'라고 일컫는 엔진 룸 트렁크가 있을 정도로 공간이 많고 전기에너지도 풍부하기 때문에 더욱 자율주행 기능을 적용하기가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사촌간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미래 먹거리 중 바로 핵심이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꼭지가 모두 융합된 과학기술의 총아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6단계 자율주행 단계 중 중간 정도인 레벨2~3단계여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자율주행 기술을 응용한 각종 옵션이 차별화되면서 타사와의 우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나올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차별화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관광지 등에서 시속 20~30km 정도의 낮은 속도로 운영되는 자율주행 마이크로 버스를 볼 수 있기도 하고 운전자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능동적 안전장치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완전한 발렛 파킹으로 편하게 휴대폰 앱으로 주차까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무궁무진한 아이템으로 각종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다리고 있고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지만 새롭게 탄생하는 일자리를 최대한 살리면서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은?

현재 국내 전기차의 기술 수준은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세계 선두급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어느 곳에 출시되어도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다. 물론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신차 출시 지체로 고민은 있으나 충분히 극복하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은 선진국 대 약 3년 정도 뒤진 상황이다. 핵심적인 라이더 센서는 올해 말 정도면 국산화 될 예정이고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산·학·연·관의 노력이 가미되는 만큼 선진국 대비 간격이 많이 좁아지리라 판단된다.

문제는 수십 년간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등 각종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근본적인 규제 정책 완화는 아직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노사 분규 문제 등 강성 노조의 움직임과 경직된 노동법 등 기업하기 힘든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기업 환경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규제로 인하여 스타트업 성공이 쉽지 않고 글로벌 히트 챔피언이라는 강소기업 육성도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약육강식의 시대와 더불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 선언과 같이 모두가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내부적인 작업 환경 개선은 기본이고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의 변화가 급진전되고 있어서 더욱 할 일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나서서 내일을 위한 고민을 심도 깊게 고려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미래는 선구자인 '퍼스트 무버'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입사원 6인의 첫인사,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지난 상반기 6명의 새로운 주역들이 폴리미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당당히 선 신입사원들. 폴리미래와 함께 성장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패기 넘치는 이들을 소개합니다. 도전, 열정, 풋풋함과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는 이들의 등장으로 폴리미래의 앞날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됩니다.



폴리미래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는 차승언 주임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최고의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하겠습니다

생산팀 차승언 주임 _ 안녕하세요, 차승언 주임입니다. 제게 있어서 회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그리고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이 두 가지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저에게 폴리미래라는 회사는 생소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 폴리에틸렌 기술력을 가진 Lyondellbasell과 국내 유화학계의 선도적 지위의 세계적인 기업인 DL Chemical의 합작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폴리미래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명실상부 폴리프로필렌 산업의 최강자라는 것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 쉽지 않은 채용 과정을 거쳐 폴리미래의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수습사원 교육 및 신입사원으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폴리미래는 석유화학분야에서 높은 기술 경쟁력과 소수정예의 뛰어난 실력자들이 모여 인원 대비 높은 매출을 달성해 내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폴리미래는 개개인 직원을 부품이 아닌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와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어, 모든 임직원들이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공학적 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동시에 갖춘 사람으로서 폴리미래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PP제품 생산공정 기술력과 글로벌 판매망을 직접 경험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폴리미래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최고의 폴리프로필렌 기업으로 성장해 갈 때 저도 회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글로벌 인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아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우리 5명의 동기들과 함께 먹는 여수 현지 음식들과 여수 해안가를 따라 신나게 달리는 자전거 드라이브 등 동기들과의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 동기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앞으로 잘 지내자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폴리미래의 좋은 자원과 환경 속에서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생산팀 소병현 주임 _ 안녕하세요, 2021년 5월에 입사한 소병현 주임입니다.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되어 아직 폴리미래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폴리미래 입사를 준비했던 과정과 지난 두 달여간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하면서 석유화학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석유화학 회사를 조사하던 중 폴리미래를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현업에 재직 중인 선배가 말해주는 얘기를 듣고 폴리미래에 꼭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



장을 구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 아주 큰 일이고, 직장으로 인해 저의 인생 또한 많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직장인지를 기준으로 제가 몸담을 회사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과 엔지니어로서의 성장 가능성이었습니다. 선배가 들려주었던 폴리미래는 저의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폴리미래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입사 후 두 달간 교육을 받으며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업무 담당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 같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배님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넓은 스펙트럼만이 아니라 깊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만 잘하면 이곳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고 현재는 폴리미래에 입사하게 된 것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위치에 있지만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성장하겠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폴리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산2팀 김성현 주임 _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김성현 주임입니다. 저는 지난 5월 20일 처음으로 동기 4명을 만났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최소 동갑인 동기가 한 명은 있을 거란 기대와는 달리 동기들 중 만형이 되어 당황하며 친구와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형으로서 동기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저 역시도 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협력했기에 어려운 교육 과정과 시험도 통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장을 입고 굳은 자세로 앉아 동기들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간 동고동락하며 교육 수료를 앞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폴리미래를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수 생활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면접 당시엔 화학공학을 전공한 이래로 충청남도 이북 지역을 생각한 적이 없다고는 했지만 내심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동기들을 만나 같이 자전거 여행도 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도 저희 신입사원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셨기에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사원으로서 저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선배님들이 교육해주신 내용을 모두 습득하진 못했지만, 틈틈이 필기하고 동기들과 토의하며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를 앞둔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신입사원 김성현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소병현 주임



겸손한 자세로 부족한 면을 열심히 채워나간다는 김성현 주임

입사할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한 단계의 성장하고 싶은 유망지 지원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열린 마음으로
생활하겠다는
김대인 주임

폴리미래 One Winning Team을 이끌 멋진 차세대 주역이 되겠습니다!

생산2팀 김대인 주임 _ 안녕하세요! 열정과 끈기가 넘치는 폴리미래 김대인 주임입니다. 저는 지난 5월에 폴리미래 입사라는 쾌거를 이루어 여수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취업 시장 속에서 제가 일하고 싶던 석유화학 산업에 취직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PP산업의 선두주자인 폴리미래의 일원이 된다는 생각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직장인만큼 걱정과 설렘으로 긴장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폴리미래 일원이 될지 고민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에 빠진 제 모습을 선배님께서 우연히 보시고 고민 상담과 더불어 뜻 깊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후배들을 챙겨주시는 선배님들의 무한한 지지와 도움을 바탕으로 현재 폴리미래에 합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폴리미래의 일원이 되기 위해 2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폴리미래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여수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내려온 지 일주일 만에 여수 FC가젤이라는 여수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동아리 내에서 여수에 사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운동도 하다 보니 더 빠르게 타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동아리내의 많은 선배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폴리미래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생각한 초심을 잃지 않고 매사 배움의 자세로 임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 훗날 폴리미래의 주역이 되는 엔지니어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폴리미래의 수습사원이 아닌 폴리미래의 일원으로 최고의 선배님들과 함께 PP산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폴리미래는 각자 개인이 회사의 자산이며, One Winning Team을 기반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음속 깊이 One Winning Team을 새기며 성실하게 노력하는 폴리미래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전문가로 성장하여 폴리미래에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생산3팀 이창규 주임 _ 안녕하세요. 2021년 5월에 입사한 이창규 주임입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석유화학업계 방향으로 꿈을 키워갔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폴리미래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선배님들의 공정 교육을 받으며 학생에서 엔지니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면접 준비를 하며 사보 <폴리마을>을 여러 번 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폴리미래의 일원이 되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최종 합격했을 때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이 여수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선배님들께서 추천해



폴리미래의 최종
합격으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이창규 주임

주신 맛집도 다니고 웅천 친수공원도 많이 놀러 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공용 자전거를 타고 검은 해변까지 다녀왔던 일입니다. 이처럼 동기들과의 추억이 벌써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아직은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실무를 하지는 않지만 PP공정과 시스템 등으로 빠르게 필기되어 있는 노트를 보면서 앞으로 'PP의 전문가'라는 새로운 목표와 함께 설레는 마음 반과 그리고 벌써부터 “내가 선배님들 연차가 되었을 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반입니다.

여수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당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이 도와주신 만큼 실망시키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넓은 세계로! 실력 있는 글로벌 엔지니어로 성장하겠습니다!

생산3팀 박준상 주임 _ 안녕하세요. 올해 1월 입사한 생산3팀 박준상 주임입니다. 어린 시절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캐나다 시민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와서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와 도시를 오가며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나가던 중 우연히 폴리미래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대학생활을 할 때 LyondellBasell이라는 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고 DL Chemical (구 대림)이라는 기업도 제게 익숙했던 터라 두 나라의 조인트벤처 회사라는 점이 한국계 캐나다인인 저와 비슷하다고 느껴져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영어와 관련한 업종에만 몸담고 있던 중 늦게나마 전공을 살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지만 면접을 보며 만나게 된 사장님과 임원분들, 회사 전체적인 이미지가 저에게 너무 좋게 다가와서 입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여수에서 혼자 회사를 다니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기간 동안 회사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서 잘 적응하고 어느덧 입사한 지 6개월이 넘게 되었습니다.

한국 회사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제게 쓰소리보다는 따뜻한 말들로 배려해주는 선배님들이 계셔서 폴리미래에 입사하기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춰 세계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폴리미래와 함께 글로벌 엔지니어로 성장해 회사에 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낯선 타지생활도
힘들지 않다는
박준상 주임

입사할 때 마음가짐 그대로
일 단계씩 성장하고 싶은
유민지 씨원





생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목마름으로 떠난 여수공장 파견기

지난 10년 동안 폴리미래 영업팀에서 쉽지가 않았던 박홍준 과장님. 입사 처음에는 쉬운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새롭고 부족한 것뿐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새로운 지식을 쌓고 노력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박홍준 과장님이 생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여수공장으로 파견을 떠나 또 다른 도전에 나섰습니다. 여수공장에서 매일매일을 일차게 보내는 박홍준 과장님의 무한 에너지를 함께 나눕니다.

공정팀 _ 박홍준 과장



폴리미래에는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되었고 무슨 업무를 담당하셨는지요?

저는 Sales & Marketing 소속 Business & Asset management 팀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사실 처음 지원은 폴리미래 재무팀으로 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폴리미래는 외국계 합작회사, 매출액 1조라는 호기심 정도만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면접 진행 당시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면접관 분들과 대화를 하고 생각을 공유해가는 과정을 통해 점점 폴리미래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당시 우연히도 면접 당일 영업팀에도 지원자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한 결과 감사하게도 2011년 6월 7일 폴리미래 영업팀 소속으로 처음 회사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수영업팀, BM팀, Market development팀을 거쳐 지난 10년을 폴리미래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견을 가게 되셨는지요?

Sales & Marketing 팀에서 지난 10년간 일을 하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신입, 대리 시절에는 퇴근 후 남아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보고, 주말마다 회사에 나와 공부를 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담당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 늘 새로운 지식을 쌓고, 주위 동료와 선배 분들에게 물어가며 배우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에 종사하면서 저에게는 항상 부족하고 채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생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영업팀 상무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파견기간 동안 어떠한 교육을 받고 계신지요?

운이 좋게도 처음 파견 기간 동안에는 새로 입사한 엔지니어 신입사원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구성이 잘 갖춰져 있는 신입사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각 구역별 기본적인 공정 및 주요 설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힐 수가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프로그램을 마치고 고서는 각 생산 팀을 돌면서 생산라인 별 제품 군에 따른 생산공정 이해 및 일근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현재는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류시스템 이해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견기간을 마치고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현재로서는 감사한 기회를 받은 만큼 앞으로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팀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에 더불어 공장 파견기간 동안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향후 다가올 폴리미래의 10년, 20년을 고민하고, 폴리미래의 미래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

과 주니어 직원들에게도 배운 것을 공유하고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중간 매니저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파견을 가셨는데, 파견기간 동안 여수생활은 어떠신지요?

물론 처음 7개월이란 제안을 들었을 때는,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장기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육아휴직 중인 아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수에 함께 내려올 수 있게 되었고,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해져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에서의 생활은 서울 생활과는 다르게 가볼 곳도 많아 매주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다행히도 아내와 첫째 아들이 너무나 만족을 하고 있어 파견 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분들께서 잘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처음 공장 본관에 내려왔을 때의 서먹함은 사라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파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파견의 장점은 새로운 곳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간 동안 기존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더 넓은 시야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가족과 함께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하면 조금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6월 7일 본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딱 10년이 지난 2021년 6월 7일 공장으로 파견을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미 부여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번 공장 파견의 기회를 통해 저의 앞으로의 10년,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폴리미래의 10년을 고민하고 계획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미래가 향후 20년, 30년 영속할 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회를 주신 김방현 사장님, 윤기엽 공장장님, 정승호 상무님, 하대봉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해답은 고객으로부터, 고객 만족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도 현장에서 고객과 마주하며 폴리미래의 간판 역할을 하는 주역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전하고자 매일 현장에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폴리미래의 내수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히어로 내수영업팀을 만나보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전하는 생생한 현장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내수영업팀



Q 폴리미래의 내수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주역들을 소개해주세요.
 저희 내수영업팀은 폴리미래 내에서도 영업의 베테랑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민영 팀장을 중심으로 엄기철 부장, 엄준식 부장, 성상훈 부장, 전규범 부장, 박철민 차장, 임채휘 대리가 내수 판매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내수영업팀은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만큼 회사를 대표하는 직원이라 항상 생각하고 있으며, 폴리미래의 이미지 재고 및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민영 팀장 : 내수 영업 총괄
- 엄기철 부장 : Automotive & appliance compound
- 엄준식 부장 : Spun bond, staple fiber
- 성상훈 부장 : BOPP, CPP, stationary
- 전규범 부장 : Pipe, industrial sheet, pallet & crate
- 박철민 차장 : Melt-blown, food packaging sheet
- 임채휘 대리 : Houseware & consumer, multi-filament,

Q 내수영업팀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폴리미래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요.
 내수영업팀은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 우리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며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고객과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큰 틀에서의 내수영업팀 업무입니다.
- 각 산업별 비즈니스 진행 및 신규 시장 개발 : 내수영업팀은 크게 비즈니스 세그먼트 별로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자 별로 해당 세그먼트의 전문성 향상 및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컴파운드 시장의 경우 국내 최



대 PP 시장 중 하나이며, 당사의 고부가가치 제품 및 신규 제품을 시장에 적용해 고객의 원가절감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폴리미래의 혁신적인 노후우가 각각의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통해 고객의 실생활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버(Fiber)와 필름(Film) 시장의 경우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고객 비즈니스에 최고의 원료 공급처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멜트-블로윈(Melt-blown), 시트&파이프(Sheet&Pipe), 하우스웨어(Houseware), 컨슈머(Consumer) 시장의 경우 최고 품질의 제품을 통해 고객의 경쟁력을 최대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신규 제품 개발 및 적용 : 내수영업팀은 기존 PP 시장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 개발과 IMR(Inter Material Replacement)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PP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내고,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대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시장에 적용하는 일도 내수영업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플라스틱 수지를 PP로 적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날로 높아져가는 일회용 플라스틱 이슈, 재활용 그리고 여러 환경문제를 생각했을 때 재활용도가 높은 PP의 적용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인 동시에 저희가 현재 당연한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고객과의 신뢰 관계 증진 : 고객은 폴리미래를 존속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고객의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폴리미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과 상업적 측면에서 여러 행사를 통해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내수영업팀은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고객과 폴리미래의 미래가치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내수영업팀에서 열정을 불태우면서 일하다 보면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영업팀원들은 중요 미팅을 제외하고는 고객 방문 및 마케팅 업무를 위해 주로 외부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교의 거리는 자동차로 많이 이동하는데, 신규 고객을 방문하는 초행길 경우에는 특히 안전운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느날 신규 고객 방문을 위해 고속도로 IC에서 진출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때마침 업무 전화가 오는데 통화 집중하느라 제때에 IC에 진출하지 못해 길을 빙빙 돌아서 고객 미팅 시간에 어렵사리 도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수영업팀 팀원들 모두는 한번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IC에 제때로 진출하지 못하면 50km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고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수영업팀에서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Q 최근 내수영업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이슈가 어떤 것인지요, 그리고 21년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세요.
 요즘 내수영업팀의 가장 핫한 이슈는 당사를 포함한 내수 경쟁사들의 PP 공장 증설입니다. 국내 PP 시장대비 급격하게 늘어나는 PP 생산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쟁사들의 저가공세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 고객 진입 시도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수영업팀을 포함해 폴리미래 전 직원이 One winning team 정신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는 더 많이 뛰고, 더 많은 고객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한 논의를 통해 획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려운 영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ummer

집캉스, 휴캉스,
바캉스 모두 모여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 손꼽아 기다려온 여름 휴가도 맘껏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이번 여름, 폴리미래 사우들은 각자의 현명한 휴가계획으로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즐거움으로 추억되는 지난 '우리들의 뜨거웠던 여름이야기' 그 추억의 조각들을 만나볼까요.



기술팀 임태수 대리

저 바다에 누워! ~
여름하면 역시 바다지~~~~ 가족 힐링 서핑으로 가족 모두 건강한 여름 나기에 도전 바닷가 휴식에 더한 하늘과 바람의 힐링

생산2팀 정현목 대리

집캉스, 휴캉스, 바캉스!
코로나19 시대에 여름휴가는 집에서 즐거운 집캉스로~!

사업자산관리팀 황인성 사원

한여름 밤의 한강 러닝 & 산책
한강변 러닝(산책)으로 건강 UP! 기분 UP!

내수영업팀 엄기철 부장

이 사진의 주인공은 양인가 강아지인가...!
정답은 강아지. 강아지와 함께한 여름 어느 날

기획팀 박재하 팀장

Summer~ Beer~ ☺
맥주 한 캔으로 날려버린 여름. 아니...여러 캔으로...

생산3팀 유승범 주임

그때 그 시절로 타임 슬립
7년 전 군시절을 보냈던 포항을 다시 방문. 그때는 몰랐던 포항의 시원한 여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생산팀 황호인 대리

옥상 파크 개장!
코로나! 무더위!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동 없이 즐기는 우리집 옥상 파크(Roof Waterpark)

시장개발팀 윤찬미 주임

웨이크보드를 타고 바람을 가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하고 침울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 찾기. "스스로 준비한 행복이 하루를 단단하게 만드니까" <나를 웃게 하는 것들만 곁에 두고 싶다, 마담롤리나>

인사노사협력팀 김현의 대리

계곡+괴기=천국^^
코로나와 무더위로 지친 여름!! 한적한 구례 산속에서 힐링을...^^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쉴 줄만 알고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터 없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가 없다.

- 헨리 포드 -

Wine

라벨 디자인이 품고 있는 스토리!

와인은 다양한 '선택과 취향'을 줄 수 있는 술이다. 와인의 인기가 높아지며 우리는 마케팅에 의해 판매량이 높은 와인보다 내가 마음에 드는 '좀 더 특별한 맛과 색다른 라벨'을 지닌 와인에 점차 매료되고 있다. 이런 와인들은 소중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될 수도,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매력적인 친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양각색 와인 라벨에 담긴 이야기와 맛을 통해 여러분의 가을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대해 본다.

소믈리에타임즈 _ 도윤 기자

사진 출처 : 파 니엔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달콤한 와인 한 잔의 파라다이스, 파 니엔테



파 니엔테는 1885년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의 49인자 유명한 미국 인상파 화가인 윈슬로 호머(Winslow Homer)의 삼촌인 존 벤슨(John Benson)에 의해 설립되었다. 벤슨은 이전 크리스티앙 브라더스 와이너리(Christian Brothers Winery)*의 창시자인 햄든 매킨타이어(Hamden McIntyre)를 고용하여 와이너리 건물을 설계하였고 그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와이너리는 1919년 금주령이 시작될 때까지 번영했지만 이후 황폐해졌고, 1979년 베스와 길 니켈(Beth & Gil Nickel)이 방치된 와이너리를 인수하게 된다. 그들은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돌에 쓰여진 돌체 파 니엔테(Dolce Far Niente :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달콤한)란 단어의 '파 니엔테'를 와이너리 이름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3년에 걸친 복원 과정을 시작으로 국가 사적지에까지 등재된 파 니엔테는 1979년 샤도네이 포도를 첫 수확하였고, 와인 병의 라벨 디자인에도 정성을 쏟고 싶었다. 이에 베스와 길 니켈은 심사숙고 끝에 스테인드글라스 예술가인 톰 로드리게스(Tom Rodrigues)에게 라벨 디자인을 의뢰했다. 처음으로 와인 라벨 디자인을 맡게 된 톰은 스테인드글라스 디자인의 영향을 받아 파 니엔테에 대해 아름답게 표현했다. 파 니엔테 와인 라벨에는 미국 나파 밸리 서쪽에 위치한 마야카마스 산맥(Maycamas Mountains)의 구불구불한 능선과 파 니엔테 석조 건물 그리고 포도밭 등이 묘사되어 있으며, 선명한 잎사귀와 포도송이가 얹혀 있는 금박 프레임은 아르누보 양식에 대한 경의이자 나파 밸리 풍경을 바라보는 창을 상징한다.

톰이 표현한 파 니엔테 와인 라벨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공존'하는 특별함을 선사하며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파 니엔테의 상징이 되었다.

*크리스티앙 브라더스 와이너리(Christian Brothers Winery)는 현재 더 컬리너리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의 그레이스톤(Greystone) 분교로 요리계의 하버드 대학교, 미국 조리사관학교라 불리는 미국 최고의 명문 요리 학교다.



파 니엔테 나파 밸리 샤도네이(Far Niente Napa Valley Chardonnay)

파 니엔테의 모든 와인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즐겁게 마시기 좋은 와인이다. 파 니엔테 샤도네이는 잘 익은 배와 레몬 껍질(Zest), 복숭아, 열대 과일 향이 피어오르고 바닐라, 견과류, 헤이즐넛 아로마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장동건-고소영' 부부의 결혼식에 등장해 '웨딩와인'으로도 불리며 축하와 응원을 위한 와인으로 인기가 많다.



사진 출처 : 파 니엔테



투투(Too Too)! 기차를 타고 떠나는 와인 여행, 듀웨이 스테이션 와인즈

듀웨이 스테이션 와인즈(Dewey Station Wines)의 와인 심볼은 와인 메이커 스테판 듀웨이의 성을 따서 탄생했다. 그런데 하나의 궁금증이 생긴다. 왜 와인과 기차 디자인일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스테판의 아버지는 철도 회사에서 오랜 세월 일을 하셨고 스테판은 아버지의 커리어와 본인이 앞으로 펼쳐게 될 와인 커리어를 함께 녹이고 싶었다. 호주 바로사 밸리(Barossa Valley) 토박이였던 스테판의 와인 인생은 그렇게 바로사 밸리에서 시작되었다.



달빛 무드에 함께 할까?



듀웨이 스테이션, 문 글로우 로제(Dewey Station, Moon Glow Rose) 문 글로우 로제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라벨은 와인 메이커 스테판의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인 '레인보우 브라이트(Rainbow Brite)'에서 영감을 받았다. 문 글로우(Moon Glow), '달빛'이라는 와인 이름에 걸맞게 '달을 바라보는 여인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다. 여인의 등에는 밤하늘의 은하수가 수를 놓고 있는데 이게 참 매력 있다. 마치 문 글로우를 마시면 직접 달에 가지 않아도 달을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림이다. 그러나 슈(Grenache) 포도로 생산했으며 꽃 향, 과일 사베트, 석류 등 붉은 과일 향이 매우 매력적이다. 식전주로 좋으며, 대체로 모든 음식과 가볍게 매칭할 수 있는 와인이다. 약간의 당도로 인해 식후에 디저트와도 잘 어울린다. 듀웨이 스테이션은 2017년 첫 와인을 출시한 호주 바로사 밸리 와이너리로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와인, 음식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와인을 만들고 있다.



사진 출처 : 컸인와인

플바디 한 와인을 즐기고 싶은 당신에게



듀웨이 스테이션, 마스 익스프레스 슈라즈(Dewey Station, Mars Express Shiraz) '트레인 시리즈'와 인접해 라벨에는 기차가 그려져 있다. 이는 와인 메이커 스테판의 아내 엘리야의 삼촌이자 개성 있는 그림으로 유명한 영국 카툰리스트 셰이키 케인(Shaky Kane)이 디자인한 것이다. 스테판은 트레인 시리즈 와인들의 스타일을 설명할 수 있는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떠오른 반짝이는 아이디어! 바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로 와인을 표현하기로 결정했다. 마스 익스프레스 슈라즈는 플바디하고 탄탄한 남성적인 스타일의 와인일 것이라 유추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려한 제비꽃 꽃다발 뒤로 검은 자두, 베리 콤포트,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시더우드의 생동감 있는 아로마와 더불어 부드러운 탄닌과 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긴 여운까지 선사하는 복합미와 퀄리티를 갖추었다. 전통적인 스타일의 호주 바로사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즐길 수 있는 와인으로 대부분의 육류요리와 스테이크, 햄, 치즈 등과 잘 어울린다.



사진 출처 : 르셀리에 인스타그램



천재 과짜의 필살기로 탄생한 새로운 DNA의 등장



파비오 제아, DNAss(Fabio Gea, DNAss) 파비오 제아는 지질학자였던 파비오 제아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의 포도밭에서 생산하는 와이너리다. 포도밭에 심어져 있던 200여 가지의 포도 중 바로로 와인으로 유명한 네비올로(Nebbiolo)와 과실향이 풍부한 바르베라(Barbera) 포도로 주로 와인을 생산한다. 파비오 제아 와인 라벨에 그려진 심볼은 농사를 지을 때 쓰이는 농기구를 표현한 것이다. DNAss 와인 라벨에 표기된 '2408' 숫자는 생산된 와인의 총 수량을 의미하며, 희미하게 적힌 숫자는 파비오 제아가 직접 기입한 'n번 째' 와인을 뜻한다. DNAss는 병 모양도 독특하지만 숙성 방법에도 특별함이 있다. 와인을 숙성하는 과정 중 4개월 가량은 수영장에 숙성 탱크를 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와인 라벨을 자세히 보면 물과 와인이 만든 '메이킹 러브'를 표현한 디자인을 엿볼 수 있다.



사진 출처 : 컸인와인

천재 과짜의 필살기로 탄생한 DNAss는 라즈베리, 산딸기, 블랙베리와 같은 과일 향과 함께 발랄하고 경쾌한 산미의 향과 맛을 선사한다.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네비올로 포도로 만든 새로운 와인을 맛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파스타, 육류, 기름류, 스프, 스테이크 등과 잘 어울린다.

느끼기 좋은 계절, 문화路 가을 산책



느끼기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여전히 길게 드리워진 코로나19의 그림자로 활동성은 떨어지고, 피로감만 쌓여가는 상태. 잠시나마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련했다. 맑은 가을 햇살을 닮은 뮤지컬부터 신선한 가을바람 같은 전시회 그리고 영화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영화로 움츠려있던 문화감성을 따뜻하게 채워보자. 가을은 곧 즐기는 자의 것이 된다.

문화칼럼니스트 _ 유진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00년 개봉한 동명 영화(감독 스티븐 달드리·제작 워킹타이틀)가 원작인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가 4년 만에 돌아왔다. 2010년 한국 초연, 2017년 재공연 이후 세 번째 시즌이 펼쳐진 것이다. 뮤지컬은 1984년 탄광노동조합의 파업시위가 한창이던 영국 북부의 탄광촌, 파업에 참여 중인 아버지와 형 그리고 치매증세가 있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11세 소년 빌리 엘리어트가 우연히 접한 발레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아내고 있다. 여기에 가족의 사랑, 우정, 이웃 간의 정 등을 다루고 있어 전 연령대가 조화롭게 보기 충분하다.

특히 세 차례의 오디션 끝에 선발된 10대 초반의 4명의 빌리 엘리어트(김시훈·이우진·전강혁·주현준)를 주목할 만하다. 160분의 러닝타임에서 빌리가 무대 위에서 춤추고 연기하는 시간은 무려 140분이나 된다. 90%에 달하는 분량을 소화한다는 얘기가. 이를 위해 이들은 1년 3개월간 '빌리스쿨'에서 마스크를 쓴 채 수백 번 넘어서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지금의 무대를 완성했다. 발레, 탭댄스, 현대무용, 아크로바틱은 물론이고 연기와 노래를 두루 익히고 있어 극의 완성도와 즐거움을 더했다. 여기에 최정원·김영주(미세스 윌킨슨 역), 박정자·홍윤희(할머니 역), 조정근·최명경(아빠 역) 등 성인배우들의 존재감도 뚜렷하여 한 아이의 성장기에 국한시키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이야기로 접근해 봐도 좋겠다. 영화를 감상했다면 그것과는 또 다른 질감의 감동과 전율을 뮤지컬로 느껴보자.

한 줄 추천 1만 3488시간, 562일, 약 18개월의 훈련 속에 탄생한 '빌리'가 궁금하다면?

- 기간 : 2021.08.31. ~ 2022.02.02.
- 시간 : [거리두기 1~3단계] 화~금 19:30, 토~일 14:00, 19:00 / [거리두기 4단계] 화~금 19:00, 토~일 14:00, 19:00
*매주 월요일 공연 없음(※ 단, 10/4, 10/11 14:00로 공연 있음)
- 장소 : 대성 디큐브아트센터(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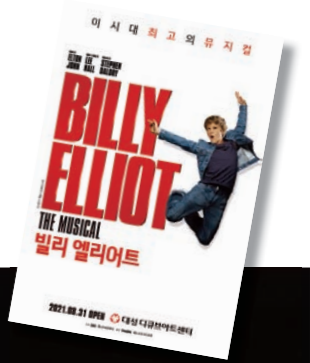


사진 : 신시컴퍼니 제공



Exhibit

<BEYOND THE ROAD>

'세계 최초 360도 감성체험'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비욘더로드>는 뉴욕 필수 관광코스인 맨해튼을 걷고 있는 세계 최초 · 최대 이머시브 공연 '슬립노모어(Sleep No More)'의 핵심 크리에이티브 콜린 나이팅게일과 스티븐 도비가 영국 유명 뮤지션인 제임스 라벨과 손잡고 만든 작품이다. 2019년 현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영국 런던 사치 갤러리(Saatchi Gallery)에서 첫 공개돼 폭발적인 관객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린 이번 전시는 음악을 매개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공간지각 등 오감을 통해 마치 음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입체적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 공간은 총 33개로 구성됐으며, 99개의 스피커와 148개의 특수 조명이 동원됐다. 특히 영화감독 대니 보일(Danny Boyle), 알폰소 쿠아론(Alfonso Cuarón), 향수 디자이너 아지 글래서(Azzi Glasser) 등 영화, 디자인, 설치, 사진, 조명, 사운드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하나의 공간을 지날 때마다 작가들의 뚜렷한 스타일과 콘셉트로 시각과 감각을 자극한다. 여기에 관람객이 적극적으로 작품에 참여하도록 기획한 점도 인상적이다. 특정 이동 동선을 정해두지 않았고, 작품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적혀있지 않아 그야말로 관람객 스스로가 공간을 찾아다니고, 회화, 조각, 비디오, 디퓨저, 조명 등을 자유롭게 경험하면서 음악을 감상하고 해석해 나가는 색다름을 전할 것이다.

한 줄 추천 트렌디하면서 몰입력 있는 전시로 기분전환하고 싶다면!

- 기간 : 2021. 07. 23 ~ 2021. 11. 28. (더현대서울 휴무일 제외)
- 시간 : 평일 10:30 ~ 20:00(입장 마감 19:00) / 주말 10:30 ~ 20:30(입장 마감 19:30)
- 장소 : 더현대서울 알트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더현대서울 6층, ALT. 1)
- 가격 : 성인 입장권 20,000원, 청소년 16,000원



1. 전시명 BEYOND THE ROAD의 의미 2. 후각으로 느끼는 음악, 레드룸 3. 대니 보일의 작품을 만나는 핑크룸 4. 스트리트 감성을 녹여낸 정류장과 UV복도 5. 오감을 자극하는 쫓놈의 방



Exhibit

<매그넘 인 파리展>

세계 역사에서 혁명의 깃발이 가장 많이 나부긴 곳. 동시에 사치와 럭셔리 산업의 심장이었다던 곳. 누구나 평생 한 번쯤 보고 싶어 하는 환상의 공간. 또, 세계 최초로 사진을 발명한 사람으로 기록된 예술가 '루이스 자크망테 다게르'가 첫 번째 사진 작품을 남긴 도시. 프랑스 수도인 파리는 이렇게나 다양한 얼굴과 의미를 지녔다. 이러한 파리를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의 대표 사진작가들의 시각으로 풀어낸 사진전을 여수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바로 예술마루와 문화콘텐츠 전문기업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가 공동주관한 <매그넘 인 파리展>이다.

매그넘 포토스는 사진가들이 주인공인 독특한 조직인 동시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진사 그룹이다. '기록을 예술의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1947년 창립했으며, 이들의 작업은 우리에게 '사진을 통해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사진을 통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사실 사진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 시간대를 함께 거닐어 보며 그때의 공기를 느껴보는 체험이다. 그런 점에서 <매그넘 인 파리展>은 세계의 문화 수도인 파리를 연대순으로 산책하면서 역사, 예술, 패션 등을 만나고 새롭게 도시를 조망해보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올가을 <매그넘 인 파리展>을 거니는 플라뇌르(flâneur·도시를 경험하기 위해 도시를 걸어 다니는 자)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

한 줄 추천 비행기 타기 어려운 요즘, 잠시나마 파리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다면!



- 기간 : 2021. 10. 26 ~ 12. 12 (매주 월요일 휴관)
- 시간 : 10:00 ~ 18:00
- 장소 : GS칼텍스 예술마루 (전남 여수시 예술마루로 100)
- 가격 : 성인 입장권 20,000원, 청소년 16,000원

사진 : 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제공



Movie

<이터널스(Eternals)>

모처럼 2021년 하반기 극장가는 마블 스튜디오 영화를 골라 보는 재미가 주어졌다. 지난 9월 1일 포문을 연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을 비롯해 <이터널스>, 그리고 12월 개봉을 앞둔 <스파이더맨 : 노 웨이 홈>까지 연이어 펼쳐지기 때문이다.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영웅 캐릭터의 등장을 알리다면, <이터널스>는 7000년 전부터 지구를 수호해온 영웅들을 소개함으로써 세계관을 확장하고, <스파이더맨 : 노 웨이 홈>은 본격적인 멀티버스를 열어줄 작품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이터널스>는 쌀쌀한 가을을 강력한 액션으로 뜨겁게 달궜을 폭발력 있는 영화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영화는 수천 년에 걸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불멸의 히어로들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 '데비안츠'에 맞서기 위해 다시 힘을 합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최초로 한국 배우가 히어로 캐릭터로 <이터널스>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팬의 관심이 높다. 바로 배우 마동석이 이터널스 일원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전사 '길가메시'를 연기했다. 미국 매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길가메시에 대해 "극도로 파워풀하고 가장 강력한 이터널스의 전사"라며 "그의 동료와 인류를 지킨다. 확고하고 의지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마블 히어로 팀의 능력과 그들이 지금껏 인류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 궁금하다면 스크린에서 직접 확인해 보자.

한 줄 추천 "돈 리(마동석)가 온다! 새로운 마블 히어로팀이 온다!"



- 장르 : 액션, 드라마, 판타지
- 개봉 : 202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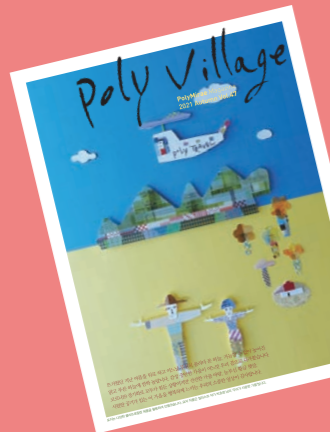
사진 :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제공

다른 그림 찾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두 사진 중 다른 부분이 5군데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메일(jy.yu@polymirae.com)로 응모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 응모 시 반드시 이름, 상품을 배송 받으실
주소를 기재 바랍니다.



통권 46호 정답 및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최승호(바젤코리아), 김은희(이용하 사우 배우자), 조하나(조영진 사우 자녀)

Hifax EP246P for EV Car internal parts

Hifax EP246P

치수 안정성 및 고광택을 가진 혁신적인 PP



Hifax EP246P는

우수한 치수안정성과 고광택 특성을 가진 임팩트 코폴리머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프리미엄 자동차의 내·외장재 및 전기·전자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